

올해 첫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

- 경남·전남 해역에서 보름달물해파리 최대 500여 마리/100m² 확인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와 국립수산물과학원(원장 최용석)은 5월 27일(월) 남해안(전남, 경남)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* 특보를 발령하였다.

* 주의단계 발령기준 :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/100m²(성체)

국립수산물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보름달물해파리를 예찰한 결과, 남해안 전체해역에서 내만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m²당 500여 마리까지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*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하게 되었다.

* 경남: 0~488마리/100m²(평균 330마리/100m²), 전남: 0~70개체/100m²(평균 16마리/100m²)

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,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.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 증가, 기온 상승으로 인해 연안 해역의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경남 고성·거제 해역, 전남 여수~강진 해역을 포함하여 전북 해역에서도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해양수산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며,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역 어선을 투입*하고 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. 또한,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* 주의단계에서는 지역어선을 투입하고, 향후 특보단계가 상향될 경우 유관기관 선박 등 투입 계획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해파리 출현에 대응하여 올해 수립한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.”라며, “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,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*해 주시기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* 모바일에서 네이버, 구글 등 포털누리집을 통해 '해파리 신고'를 검색하거나 'www.nifs.go.kr/m_jelly/'로 직접 접속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30)
	수산자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준환 (044-200-5542)
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최재환 (044-200-5250)
	해양레저관광과	담당자	사무관	이윤희 (044-200-5253)
	국립수산물학원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기후변화연구과	담당자	연구관 민병화, 윤석현 (051-720-2750,2240) 연구사 이시우 (051-720-2752) 연구사 김경연 (051-720-2223)	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특보발령 해역 및 보름달물해파리



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하세요!



모바일 웹 신고

여러분의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는
해파리 출현정보로 이용되어
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쓰임 방지에
활용되고 있습니다.

신고 방법 ①

- QR코드 접속
QR코드를 찍어보세요!



신고 방법 ②

포털사이트(구글 등)에서 “해파리 신고”검색하여
“해파리정보시스템-국립수산물과학원” 페이지로 접속하여 “해파리 신고 web” 클릭

